

한국어 어휘 교육 재조명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구의 주제별 분석

조문군
(부산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 분석 대상
 - 2.2. 연구 분석 방법
3. 연구의 결과
 - 3.1.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측면
 - 3.2. 상이한 언어 기능과의 관계 측면
4. 결론 및 제언

<Abstract>

Jo, Mun-gun. 2020. 12. 27. **Topic-based Analysis of Current Research on Korean Vocabulary and its Applications to Korean Classrooms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7. 151-173.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research on Korean vocabulary and to synthesize the findings based on main points of vocabulary research. With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various articles from four major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 total of 30 vocabulary-related articles in the journals published after 2000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teaching and learning; assess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language skill. And this study show that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among these domains. There were conflicting results of the effects of using implicit and explicit approaches to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There is also a dire need for teachers to develop students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Various factors affecting students' vocabulary competence are examined for effective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Considering the current trend of various views in language teaching more balanced vocabulary research in terms of topic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Sever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Korean vocabulary, vocabulary education, topic-based analysis, research analysis, words, synthesis, lexical approach

1. 서론

한국어 어휘 교육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20세기 초반의 언어 교육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독해중심과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어휘들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학습자의 양산에는 이러한 문법과 어휘를 강조한 접근법은 읽고 쓰는 기능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시와 더불어 청화식 교수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청화식 교수법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지도하

는 교사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문법 어휘 교육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유형들을 지도하면서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문형을 내재화 하면 자연스럽게 어휘가 습득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또한 과도한 어휘 학습은 초기 단계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언어의 문법과 음운 체계를 익히는 것이 습관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언어교육의 목표 달성에 방해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 교육 관련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청화식교수법에 대해 Decarrico(2001)의 연구에서는 언어학자들은 1970년대 초기까지는 어휘 중심이 아니라 통사론, 음운론 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휘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무래도 부족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부터 어휘 교육에 관련 연구는 외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방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Decarrico(2001)는 언어를 구사할 때 유창성이 강조되고, 유창성 향상의 주요 역할을 하는 어휘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Lewis(1993)연구에서 어휘 중심 교수법은 어휘와 문법을 각기 다른 분야로 보지 않으며, 모든 어휘는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어근을 습득함으로써 문법 능력이 자연적으로 함께 갖추어진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휘 관련 연구를 통해 어휘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Read 2000; Carter & McCarthy 1998; Coady & Huckin 1997).

Nation(2001)은 어휘를 습득하여 안다는 것은 형태 및 의미를 알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읽기 및 듣기를 통하여 익히는 어휘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사용에 대한 경험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다. Vermeer(1992)는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대상 언어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준다고 하였으며, McCarthy(1990)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문법 능력이나 발음 수준이 높다고 해도 다양한 범위의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가 없이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려면 학습자는 풍부한 어휘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어휘 문맥을 활용하여 어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외국어 학습자 관점에서 유창성의 의미를 용이하게 하는 전달 능력으로 바라볼 때, 문법적 정확성보다는 어휘의 적절성과 정확성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어 학습자가 자신에 관한 의사표현을 전달할 때는 풍부한 어휘지식이 문법지식에 비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aufer 1997).

현재 동향은 어휘 관련 범위를 분석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어휘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모국어 외의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어휘 연구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사실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어휘 관련 학습 및 교수 및 교재 개발 등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주제별 분석에 따른 한국어 어휘교육에 관한 재조명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관련 KCI¹⁾등재 국내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 관련 기존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선정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은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원문) 및 참고문헌을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2020년 12월 기준: KCI등재 2,345, KCI등재후보 302, 기타 학술지 3,172, 학회 3,896, 대학부설연구소 5,743, 일반기관 153).

된 KCI 등재학술지(이하 등재학술지)²⁾ 한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기타 학술지(한국어교육연구 등)로 구분하였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기존 논문들 중 2000년대 이후에 연구된 어휘 관련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 한국어 단어, 한국어 어휘가 포함된 것으로 어휘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³⁾ 를 통해 한국어 어휘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국내학술지 논문 주제어 분류에서 위 키워드들로 검색한 결과 중에서 한국어어휘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학술지에 게재된 3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2.2. 연구 분석 방법

한국어 어휘 연구의 주제별 분석 기준은 교수학습 측면 및 상이한 언어 기능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Nation(2003)의 어휘 학습 교수법 4가지 원칙인 의미 중심 입력에서 배우기, 의도적인 언어 중심 학습, 의미 중심 출력에서 배우기, 유창성 발전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으며, 각 주제별 분류기준과 각 기준의 하위기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2) 등재학술지 용어의 정의는 KCI 학술지 구분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기존 논문의 대한 용어는 RISS의 용어사용에 따른 국내학술논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는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http://www.riss.kr/index.do>).

<표 1 연구 주제별 분류기준과 하위기준>

분류기준	하위기준
어휘 교수학습 측면	-명시적 접근/암시적 접근 -학습적 전략 -어휘학습 영향 요인
다른 언어 기능과의 관계 측면	-듣기/읽기/말하기/쓰기

3. 연구의 결과

3.1.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측면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 측면 관련 논문으로 24편(88%)으로 분석 영역 두 가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영역은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크게 명시적 접근 및 암시적 접근과 학습 전략, 그리고 어휘 학습의 영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휘 교육의 보편적인 시각은 두 가지로서 어휘 교수와 학습 전략, 즉 명시적인(explicit)접근 및 맥락을 통한 암시적인(implicit)접근을 들 수 있다. 먼저 명시적 어휘 교수학습은 계획적, 의도적, 직접적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암시적 어휘 교수학습은 비계획적, 간접적, 우연적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두 가지 시각의 효과적인 측면을 최대한 부합하는 절충적 어휘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명시적인 접근법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신성철 외(2020)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작문할 시에 명확하지 않은 문법적 지식과 구어체에

서 문어체로의 전환 등으로 특정한 언어학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 그 중 소유격 ‘-의’가 처소격 정태 조사인 ‘-에’로 대체되거나 처소격 정태 조사 ‘-에’와 처소격 동태 조사 ‘-에서’의 쓰임이 대체되는 경우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와 명시적 접근(explicit instruction)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습득이 향상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이해영(2015)는 화용 교육에서도 문법 교육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목표어 언어 환경에의 노출이든 자연스러운 습득이든 암시적 교수법에 비해 명시적 교수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재 및 교실 교육에서 명시적 교수가 적용 여부를 두고 교재가 명시적 기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기관에서 최근 개발된 교재를 분석하였다.

전은주(2020)의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거절 발화에 나타난 명시적 불손 표현을 살펴보면, 상대 대상자에 대한 체면 손상과 관련된 강도가 비교적 높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상대방과의 친근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로 다가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표현 분야 중 명시적인 불손 표현이 고급 수준에 해당되는 학습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위의 연구들에서 명시적 접근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대상과 환경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휘 학습방법이 요구된다. 즉 단어 어휘 목록 활용은 단어에 대한 단순한 정의적 의미뿐만 아니라 관련 단어와 정보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목표어의 어휘체계를 익히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암시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는 이민우(2018)은 학문목적 한국어교육에서는 명시적 및 정의적 어휘 교수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맥적 추론 및 배경적 지식 활성화를 유도하는 학습 방식

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다. 도입 단계에서 특히 어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같은 차이를 통해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위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다. 암시적인 방법은 어휘를 별도 조직화하여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어휘 습득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발전을 보여주었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어휘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인지시켜 주었다.

앞에서 살펴본 명시적, 암시적 이 두 접근법을 다른 절충형 접근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경 외(2020)의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사용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학습자 말뭉치에서 이동 동사 ‘오다’의 용례를 정련하여 총 3,263개의 용례를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초급 단계에서는 37개 의미 중 17개의 의미가 사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기본 의미의 비중이 6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급, 중급, 고급단계에서 살펴본 의미 유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게 되면 ‘오다’의 의미 사용 범위가 확장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숙달도가 확장된 의미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학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오다’의 의미 유형은 구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의미에서 높은 추상성의 방향으로 확대된다. 셋째, 단계별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언어 학습의 각 요소들이 어휘 의미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 빈도수가 높은 확장 의미들은 명시적 및 암시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 의미에 익숙해지도록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이유경 외 2020).

위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교수자들이 특정 어휘 접근을 어떤 하나로 선택하기보다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단계 수준에 적합한 어

휘 제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명시적 및 암시적 방법의 사용을 절충적으로 진행해야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학습전략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능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전략을 제시하여 한국어 교수자들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전략을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습전략 연구 방면에서 먼저 신수련 외(2017)는 한국어 관용어 처리와 학습전략의 상관성 연구에서 행동반응과 어휘학습전략을 기반으로 총 37명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연어와 반투명 관용어 및 불투명 관용어에 대한 어휘 판별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행동 반응과 수행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한 어휘 학습 전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총 37명의 실험 대상자들은 외국인유학생들로 국내의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들이 대상이었다. 이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어/반투명 및 관용어/불투명 관용어의 순으로 정확도가 높고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용어 교육을 위해 분석적 능력 및 담화 맥락을 동시에 제시하는 교육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용어의 의미를 유추하면서 세부적이고 다각적 사고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조희영(2020)은 다문화 초등학생용 표준 한국어 교재의 어휘 학습 전략의 분석 결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1~2학년 교재에서 17개가 추출되었으며, 3~4학년 교재에서는 19개, 5~6학년 교재는 18개의 어휘학습 전략이 나타났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의미발견 전략이 22개이며, 기억강화 전략이 32개로 의미발견 전략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교재에서 새로운 어휘의 학습보다 기 학습한 어휘의 장기적인 기억을 위한 교육 내용이 더 많

이 수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림(2020)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 이상의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표하기와 회상하여 말하기 과제에 따른 구어 어휘 다양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표하기와 회상하여 말하기 과제에 따른 상위 집단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제에 따라서 어휘가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략과 습득하고 있는 책략 및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책략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민우(2018)의 연구에서 어휘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미 관계를 활용하여 인위적이고 조직화된 제시보다는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제어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어휘 학습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방식은 어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학습 효과를 가져왔으며, 어휘 학습의 능력에 따라 내용의 이해도에도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전략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게 되는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 제시의 후속연구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세 번째, 어휘학습 영향 요인은 학습자의 내적인 변인과 교수 및 학습활동의 변인, 교재 및 환경 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내적 변인 요소는 개인적 성향, 모국어 학습 영향, 어휘 습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작용을 고찰한 연구들은 한국어 학습자의 내적변인의 영향이 어휘학습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홍중명(2014)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에서 공교육 현장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환경의 한국어 학습자 구성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자기결정성 동기에 관한 유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한국어 구사능력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한다

는 것으로 설명됨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유림(2015)의 연구에서는 이해어휘 측정, 표현어휘 측정을 통해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차이 및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변인 그리고 어휘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해어휘 측정 도구와 표현어휘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차이에서는 그 비율을 비록 수치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해어휘가 표현어휘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김영주 외(2018)는 용언 어절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모어 화자 및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용언 어절 재인에서 어휘 관련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용언 어절 재인 시에 한국어를 모어로 화자의 경우에는 심성어휘집 내에 전체 용언 어절이 저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보경(2020)은 중급 단계 한국어학습자들은 초급과 고급 수준의 중간 단계이므로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 문장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한국어 관련기관에서 한국어 중급단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학습한 기능어휘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사용으로 전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말하기 시험에 해당하는 인터뷰 분석을 하였다. 비교 결과로는 기능어휘 사용 면에서 3급과 4급의 말하기 수준에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연구들은 용언의 어절 판단 과제를 활용하여 모어 화자 및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용언의 어절 재인에서 어휘 변인에 관한 분석을 한 연구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급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학습한 기능어휘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 시험을 인터뷰 분석한 것이다. 두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어 학습자 성향을 보면 학습 방법 및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한국어 학습자 성향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의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유문영(2018)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연어 오류에 적지 않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어 학습과 교육이 오류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어 오류 중에서 81%는 조사의 오류로 나타났으며, 연어 구성 어휘 오류는 19%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가 원어민처럼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의 중요성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연어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유문영(2018)의 연구 결과는 학습자 말뭉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 오류 양상의 전반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 단계별, 통사별, 오류 원인별의 오류 양상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 현실 전반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아울러 어휘학습 영향 요인 중에 교재 및 환경 변인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 교과 외의 매체활용, IT 활용, 그리고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연구로 분류해볼 수 있다.

김정운(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에 이주하여 자연 학습 환경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통사 발달 과정에 대해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세 가지 지표 측정을 통해 통사적 흐름에 따라 횡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세 가지 변인이 한국어의 학습 발달 과정에 따라 어떤 차이가 가져오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교육 기관이 아닌 자연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자가 학습 한국어 학습자 구성원에서도 목표어에 대한 명확한 통사 발달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의 구어 및 문어의 조합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면서 발달했다는 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정확성 및 유창성의 발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도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재 방면과 관련된 연구로는 자오항(2019)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상명사 중 동의어와 유의어 교육에서 참고할

교수요목 제시 연구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유사성을 공유하는 유의어를 함께 다루어야 하며, 상이성을 공유하는 다의어와 반의어를 함께 다루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강현화(2014)는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학습량과 교재 수준에 대한 타당성과 연계성을 양적인 분석법으로 평가하였다. 숙달도별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1급~6급의 교재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 한국어교육 관련기관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교재에 나타난 어휘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주로 양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며, 숙달도별 선정 어휘량을 추정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휘 교육적 관점에서도 숙달도별로 고려해야 할 어휘군 등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어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참고할 교수요목은 한국어 유의어 관련 추상명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교육 관련기관에서 강조되었던 음성언어 즉 말하기 비중을 한국어 교재에서 강화의 필요성이다.

교과 과정 외의 학습자료 활용 등에 대한 연구는 어떤 한 주제에 집중적인 연구는 미흡하지만, 각종 매체를 활용한 어휘 지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지현(2007)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 경향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읽기 텍스트를 활용하여 어휘 주석 접근 형태로 분석하였다. 세부화한 입력 수정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입력 제공을 통하여 어휘에 대한 주의 집중 지도 방법으로 어휘 학습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어휘 주석을 통한 접근 방식이 어휘의 난이도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어 독해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도 이러한 어휘 지도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다. 강현화 외(2019)는 한국어 교육 관련 어휘 교재 개발 연구에서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어휘 교수·학습 교재 개발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연구 성과를 교재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학습의 효과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등에 흥미 있는 소재를 제공해주면 지속적으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복수언어교재 개발은 새로운 외국어 어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담없이 어휘 습득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앞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경우이지만 한한사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문맥적 어휘 습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컴퓨터 활용 연구 방면은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고, 인터넷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소형 단말기와 휴대전화의 편리성과 신속함이 확대되면서 어휘 학습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학습 과제 구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형민 외(2020)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전반, 연구의 대상, 연구의 주제에 대한 범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그간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웹 기반 한국어교육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한국어교육 연구분야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연구의 지평확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등급의 일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한국어교육 연구의 내용이나 주제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어 학습 대상자의 단계별에 따른 특성화된 연구도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아름(2020)은 학습 매체로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모바일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활용 한국어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유의어 변별 모바일 사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자료로서 분석하였다. 모바일 환경에서 한국어 동영상 교수자료 개발 원리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이해 영역 학습 관련 동영상 큰

텐츠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한상미 외(2014)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나날이 빠른 성장세로 발전하고 있는 휴대용 모바일 산업 서비스 확대에 따라 어휘학습에 이리한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노정은 외(2020)의 연구는 언어 교육의 교수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 수업 방식과 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인식 분석을 위해 H대학교 한국어과정 이해종사자인 유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학생들과의 라포형성, 즉각적이고 신속한 질의응답, 상호작용 등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대면 방식에서는 어휘를 비롯한 문법 관련 학습 내용 제공의 교수법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는 한국어 관련 매체의 활용과 더불어 현장의 한국어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을 상기시켜 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인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체제 등이 형성되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보았을 때, 온라인에서도 한국어 학습 관련 친화적인 교실환경 형성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상에서의 친화적 교실 환경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어휘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전반에 따른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친화적인 교실환경의 제공은 동기유발, 흥미도 등 정의적인 요인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향후 한국어 관련 전반적인 교육 측면에서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후속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상이한 언어 기능과의 관계 측면

한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4가지 기능인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었다. 어휘 교육도 마찬가지로 언어 기능 수업의 일부분으로 치부하였으나, 최근 상이한 언어 기능을 활용한 어휘 교수·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는 쌍방향 효과에 대한 연구도 6편(12%)을 들 수 있다.

먼저 듣기 영역에서 살펴보면 오해리(2018)는 중국 소재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 관련학과 재학 중인 1학년 27명을 대상으로 SPSS 23의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접근 방법으로 한국어 어휘 지식 및 듣기 이해능력의 상관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한국어 어휘 지식의 세 가지 하위 구성 요소는 모두 듣기 이해능력과 연관성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한국어 어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어휘 지식에 관한 양적, 질적인 분석을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 읽기 영역에서 주재환(2018)은 어휘의 수준별 조정을 한국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한국어 읽기 이해도 정도 비교를 통하여 원문 텍스트 및 어휘의 난이도를 다르게 수정한 텍스트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이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조사 결과 어휘 조정이 한국어 읽기 이해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현진(2020)은 한국어 초급 대상 학습자들이 음독(oral reading), 묵독(silent reading) 학습 시에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는 한국어 초급 대상 학습자들을 위한 읽기 학습의 교실 활동(classroom performance)에서 음독이 묵독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소리내어 읽어주는 한국어 학습 활동은 어휘력 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충실 외(2015)의 연구는 국내 상호 최적성 이론의 선행 연구를 재조명하고 그 한계와 말하기 교육에서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로 상호 최적성 이론의 발전 배경 및 특징에 따른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채윤미 외(2020)는 한국어 학습자의 장르별 쓰기 교육을 위한

단계적 연구로 텍스트의 장르 관련 교육에 관한 연구 기반 초석 마련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어 모어 학습자의 실제 텍스트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이다. 진대연(2006)은 한국어 쓰기 능력에서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에 관한 학습자의 언어사용에 관한 다양한 객관화된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어휘량이 많을수록 어휘밀도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 중 일본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수학습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의 쓰기 시험과 채점기준 진술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였다.

어휘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 어휘를 독립적으로 지도한다면 학습자가 주의를 어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그리고 어휘를 문맥 상황 내에서 가르치면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어휘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앞의 연구들은 후자의 입장에서 효용성을 검증한 연구이며, 읽기 기능과 어휘교육이 상호 보완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어 학습활동으로 음운을 소리내어 읽기로서 한국어교재의 강독은 어휘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어휘책략과 어휘상을 익히면 한국어 독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네 가지 기능과 어휘교육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연구는 읽기 기능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 및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학습활동은 음운과 어휘를 연결하는 활동이 시작점이 되므로 상호보완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휘 기억 학습에서는 쓰기 과제에 어휘를 활용하는 학습을 지향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학습에서 표현 언어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에 전자우편, 언어 등을 활용한 쓰기 과제는 보편화하기 좋은 연구이다. 최근 듣기 및 말하기 기능에서 어휘와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의 수가 부족한 편이라 학

습자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후속연구의 지평확대가 기대된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기능인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는 뿌리와도 같아서 어휘력의 바탕 없이는 실제에 있어서 의사소통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제2언어 교육학자들 또한 충분한 어휘력이 갖추지 못할 시에는 이미 습득한 구조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ivers 1983). 이러한 기존 연구를 근간으로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어휘 교수 학습 관련 연구에 관한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주제별 연구에 대한 동향을 통해 한국어 어휘 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어휘 교육과 관련한 주제별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어휘제시 방법에서 명시적인 방법 및 암시적인 방법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 절충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수 있었다. 한국어 어휘 교육 교수자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한국어 어휘 지도 시에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어휘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전략과 관련된 어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에 따른 어휘 학습 전략의 사용과 어휘력 사이에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수자는 우선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 개발로 연계되어야 하며,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수 방안이 요구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교수 지도 방안 안에서 어휘 실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내적 변인과 교수 및 학습활동 변

인 등 어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교수자는 학생들의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먼저 연구 분석 대상이 30편의 논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을 많이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 분석 방법에서 교수학습 측면과 다른 언어 기능과의 관계 측면으로만 분류하여 평가측면 등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어 어휘 연구 주제별 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 교육과 관련된 최근 연구를 주제별로 분석하여 제공하였으며, 이 연구가 한국어 어휘 교육 관련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2014). 국내 한국어교육기관 교재 어휘 분석 연구-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1권. 37쪽-60쪽.
- 강현화 외(2019). 단어 형성 원리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4권. 47쪽-77쪽.
- 김남희 · 김혜빈(2020).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6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24쪽.
- 김보경(2020).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기능어휘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 교육> 31권 3호. 47쪽-75쪽.
- 김영주 외(2018). 한국어 용언 어절 재인에 미치는 어휘 변인의 영향-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예-, <한국어 교육> 29권 3

호. 25쪽-53쪽.

- 김정운(2017). 자연 학습 환경에서의 L2 한국어 통사 발달과 학습자 변인에 대한 횡적 고찰, <이중언어학> 67권. 63쪽-101쪽.
- 김충실·고륙양(2015).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의 상호최적성이론 적용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11권 1호. 5쪽-24쪽.
- 김현진(2020). 소리 내어 읽기와 묵독이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권. 51쪽-78쪽.
- 김형민 외(2020). 웹 기반 한국어교육 연구의 동향과 전망, <이중언어학> 80권. 105쪽-136쪽.
- 박아름(2020). 모바일 한국어 유의어 변별 사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749쪽-769쪽.
- 박지현(2007). "논문 : 어휘 주석이 한국어 우연적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교육> 18권 2호. 115쪽-134쪽.
- 신성철 외(2020).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를 위한 ‘명시적’ 문법 교육의 효과-소유격 조사와 처소격-정태 조사 및 처소격-정태 조사와 처소격-동태 조사-, <문법 교육> 39권. 37쪽-76쪽.
- 신수련 외(2017). 한국어 관용어 처리와 학습 전략의 상관성 연구-행동 반응과 어휘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69권. 113쪽-135쪽.
- 오해리(2018). 초급 KFL 학습자 한국어 양적·질적 어휘 지식과 듣기 이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한국어 어휘 지식 측정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人文研究> 85권. 61쪽-92쪽.
- 유문명(201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사용 오류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9권. 175쪽-195쪽.
- 이민우(2018).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 연구-문맥 추론과 배경지식 활성화를 통한 수업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

- 어 교육> 29권 4호. 93쪽-112쪽.
- 이유경 외(2020).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의 의미 습득 연구-이동 동사 ‘오다’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7권. 171쪽-201쪽.
- 이유림(2020).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어휘 다양성과 어휘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발표하기와 회상하여 말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9권. 251쪽-278쪽.
- 이혜영(2015). 한국어 화용 교육에서의 명시적 교수 가능성과 교실 적용, <한국어 교육> 26권 3호. 247쪽-266쪽.
- 자오항(2019). 한국어 유의어 추상명사 교수요목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11권. 109쪽-126쪽.
- 전은주(2020). 거절 화행에 나타난 한국어 학습자의 불손 표현 연구, <한국어 교육> 31권 3호. 273쪽-308쪽.
- 조희영(2020). 다문화 초등학생을 위한 어휘 학습 전략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 32권. 143쪽-168쪽.
- 주재환(2018). 수준별 어휘 조정에 따른 한국어 읽기 텍스트 이해도 비교 연구, <한국어 교육> 29권 4호. 201쪽-223쪽.
- 진대연(2006). 한국어 쓰기능력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30권. 379쪽-411쪽.
- 채윤미 외(2020).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8권. 173쪽-200쪽.
- Carter, R., & McCarthy, M.(1988).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Harlow, Essex, 1988, 1-242쪽.
- Coady, J., & Huckin, T.(1997).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7. 1-299쪽.
- Decarrico, J. S.(200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M. 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 foreign language*(pp. 285-299), Heine & Heine, Boston, MA, 2001, 1-584쪽.
- Laufer, B.(1997). *What's in a word that makes it hard or easy: Some intralexical factors that affect the learning of words*, In N. Schmitt & M. McCarthy(Eds.), *Vocabulary*(pp. 140-1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7, 1-383쪽.
- Lewis, M.(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a way forwar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Hove, UK, 1993. 1-250쪽.
- McCarthy, M.(1990). *Vocabulary: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0, 1-219쪽.
- Nation, I. S. P.(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Newbury House*, New York, 1990, 1-275쪽.
- Read, J.(2000). *Assessing vocabul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0, 1-280쪽.
- Vermeer, A.(1992). *Exploring the second language learner lexicon*. In L. Verhoeven & J. H. A. L. de Jong (Eds.), *The construct of language proficiency*(pp. 147-162). John Benjamins, Amsterdam, 1992, 1-212쪽.
- Rivers, W. M.(1983). *Speaking in many tongues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3, 1-320쪽.
-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http://www.riss.kr/index.do>

필자 소개

성 명 : 조문균

소 속 : 부산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협동과정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89번길 29 [우편번호] 46285

전화번호 : 010-3673-8864

전자우편 : zhaowenju810@hotmail.com

투고일: 2020. 12. 27 / 심사일: 2021. 1. 4 / 심사완료일: 2021. 2. 18